

황대인, 기대주 떴고 대형주로 날아오른다

KIA 6년차 내야수

“형은 장타자인데 왜 공을 뒤에 놓고 쳐?” KIA 타이거즈 황대인의 생각을 바꾼 후배 최원준의 질문이었다.

63경기 138타석.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 경기-타석수이지만 6년 차 황대인에게는 가장 많은 기회가 주어진 2020시즌이었다.

데뷔 첫 멀티 홈런을 장식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던 황대인은 “프로 와서 제일 많이 뛰어보기도 하고 좋았던 것 같다. 야구를 많이 배우고 경험한 시즌이었다”고 돌아봤다.

시즌이 끝나는 게 가장 아쉬운 선수이기도 했다.

“타격에서 심하게 틀러코스터를 탔다. 그게 시즌 마지막에 잡힌 게 아쉬웠다”고 말하는 황대인. 좌투수에 맞춰 선발로 나서면서 출전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점점 타석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마지막 10경기에서는 17타수 7안타로 0.412의 타율과 5타점도 올렸다.

많은 것을 배운 올 시즌, 황대인의 정신이 변해갈까 하는 말들이 있었다.

황대인은 “올 시즌 많은 분께 조언을 들었다. 최희섭 코치님도 그렇고 송지만 코치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다. 내가 어린 나이는 한데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도 아니다. 송 코치님께서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이게 실력이 될 수 있다고 하신 게 와 닿았다”고 말했다.

타격에 눈을 뜨게 한 말도 있었다.

시즌 초반 빠른 페이스로 삼진을 쌓았던 황대인은 시즌 막판 볼넷으로 출루율을 높였다. 생각해보면 ‘안일함’이 만든 볼넷이었다.

해마다 잦은 부상에 만년 기대주 올 시즌 63경기 138타석

마지막 10경기 타율 0.412 활약

멀티 홈런 등 거포 성장 가능성 1루 수비 합격점...공·수 자신감 ↑

“몸 관리·타격 기술 답 찾아가는 중”

황대인은 “볼넷으로 한참 많이 나갔다. 그러다 보니(볼넷에) 현혹됐다. 송 코치님께서 ‘내가 공 잘 봐서 볼넷으로 나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셨다. 내가 공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원준이도 ‘형은 장타자인데 왜 공을 뒤에 놓고 쳐?’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며 “삼진을 많이 당하다 보니 더 볼넷을 의식했던 것 같다. 코치님 말씀과 원준이 이야기를 섞어보니 나도 모르게 됐다. 포인트를 앞에 두고 치니까 결과가 괜찮았다. 후배라도 배울 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자신에게 기대하는 장타자의 모습으로 돌아온 황대인은 시즌 막판 타격 가능성을 보였다. 처음 도전해본 1루자리에서도 합격점을 받았다.

황대인은 “1루 보는 자체가 어색했는데 캠프가서 많이 바뀐 것 같다. 감독, 코치님께서 편하게 대해주시어서 나도 마음이 편해졌고 자신감이 생겼다”며 “뺨아서 잡는 걸 연습 많이 했다. 처음에는 운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두 번 하다 보니 자신감

이 생겼다. 위치를 중요시 하는데 하다 보면 확률적으로 어디로 오는지를 알게 된다”고 말했다.

공·수에서 성장은 했지만, 내년 시즌 독한 경쟁이 황대인을 기다리고 있다. 터커의 1루수 전향이 거론되면서 황대인에게는 산 넘어 산이다.

황대인은 “나랑 (유)민상이 형이 얼마나 못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다”고 냉정하게 자신을 평가했다.

그래도 공·수에서 자신감이라는 큰 소득을 얻은 황대인은 ‘건강한 시즌’을 목표로 재정보비 시간을 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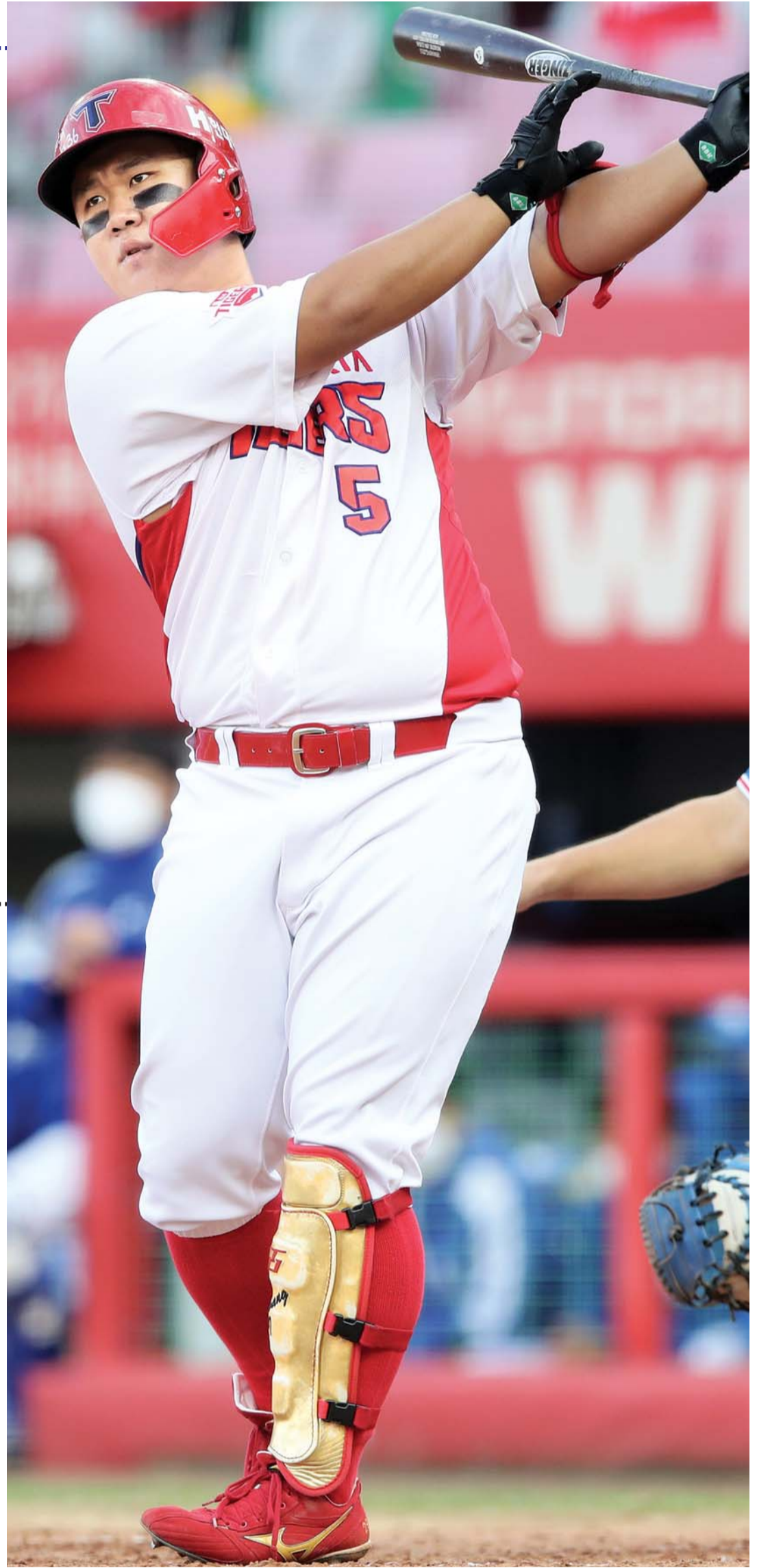
2015년 경기고를 졸업하고 2차 1라운드로 입단한 황대인은 KIA의 장타 고민을 풀어줄 거포 자원으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부상이 따라다니면서 기대보다 결실이 더뎠다.

상무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지난해 어깨 통증으로 고전했고, 올 시즌에도 왼 옆구리 통증으로 재활조에 이름을 올렸다.

황대인은 “잔부상이 많다. 시즌만 되면 체중 관리가 잘 안 된다. 야구를 잘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먹는 게 관리가 잘 안 됐다”며 “막연하게 살을 빼려고만 생각했는데 배운 코치님께서 안 아프게, 어떻게 해야 되는 지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마무리캠프하면 강도 높고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했는데, 내년을 위해 준비하는 운동을 했다. 좋은 것 같다”며 “기술적인 부분을 내가 오히려 찾으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황대인



최형우

선배들도 인정한 최고 선수 ‘최형우’

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 선정 ... 다음달 3일 시상식

KIA 타이거즈의 ‘타격왕’ 최형우가 프로야구 선배들이 선정한 ‘2020 최고의 선수’가 됐다.

(사)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이하 한은회·회장 안경현)가 내달 3일 오후 12시 호텔 리베라 청담 베르사이어 홀에서 ‘2020 스포츠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의 날’ 시상식을 연다.

이날 최형우가 최고의 선수로 호명된다. 최형우는 올 시즌 0.354의 타율을 기록하며 ‘타격왕’에 등극했고 115개의 타점과 1.023의 OPS를 기록하는 등 KIA의 공격을 이끌며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줬다.

‘최고의 타자상’은 NC 다이노스의 통합 우승을 이끈 양의지에게 돌아간다.

NC의 주장인 양의지는 33홈런과 124타점을 기록하며, 포수 최준 30홈런 100타점을 달성했다.

홀드 1위를 장식한 KT 주권은 ‘최고의 투수상’ 주인공이 됐다. 주권은 KT 불펜의 허리를 지키면서 31홀드를 달성했다.

역시 KT의 투수인 소형준은 ‘최고의 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원 유신고를 졸업하고 올 시즌 프로에 뛰어들어 소형준은 26경기에 나와 3.86의 평균자책점으로 13승 6패를 기록했다. 소형준은 두산과의 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로 나와 6.2이닝 4피안타 1볼넷 4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를 하며 ‘특급 투기’의 면모를 보여줬다.

어린 시절 혈액암을 이겨내고 대학야구 U리그에서 공·수에서 맹활약하며 팀의 창단 첫 우승을 이끈 한일장신대 포수 김록겸이 ‘아마 특별상’을 받는다.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에서 김해고등학교의 창단 첫 우승을 이끈 박무승 감독에게는 공로패가 주어진다.

올 시즌을 끝으로 그라운드를 떠나는 한화 김태균에 대한 ‘레전드 특별상’ 시상도 이뤄진다.

일본에 진출했던 2시즌을 제외하고 한화에서 18시즌을 보낸 김태균은 통산 2014경기에 나와 타율 0.320, 2209안타, 311홈런, 1358타점 등을 기록했다. 한편 시상식은 KBSN 및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 생중계된다. /김여울 기자 wool@



이강인

이강인 빼지 말라고 했지?

3경기 무패 발렌시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0-1 패

이강인(19)이 4경기 만에 벤치로 빠진 스페인 프로축구 발렌시아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졌다.

발렌시아는 29일 스페인 발렌시아의 메스타야 경기장에서 열린 2020-2021시즌 프리메라리가 11라운드 홈 경기에서 토니 라토의 자책골 탓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0-1로 졌다.

이강인은 교체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그라운드를 밟지 못하고 벤치에서 패배를 지켜만 봐야 했다.

발렌시아는 이강인이 선발 출전한 지난 3경기에서 무패(1승 2무)를 달렸다. ‘거함’ 레알 마드리드에 4-1 대승을 거두기도 했다.

이강인은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만 9경기에 출전해 득점 없이 3도움을 기록 중이다.

이강인의 변덕하는 패스 없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한 발렌시아는 승수 5-14, 점유율 33-67로 크게 밀렸다.

공세를 퍼붓고도 골 결정력 부족에 앞서나가지 못하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발렌시아 수비수 라토의 자책골이 나온 후반 34분에야 비로소 웃었다.

야누 카라스코가 왼쪽을 돌파해 넘긴 땅볼 크로스에 문전으로 쇄도하던 비틀로가 발을 갖다 댄다는 것이 제대로 맞지 않고 뒤로 흘렀다. 이 공이 라토의 발에 맞고 골대로 향했다.

경기 뒤 기자회견에서는 이강인을 왜 출전시키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허비에르 그라시아 발렌시아 감독은 “어떤 선수를 선발로 내보낼 때는 다 이유가 있다”면서 “(이강인과 비슷한 자리에 선발 출전한) 마누 바예호와 막시 고메스의 경기력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강인을 잘 훈련하고 있으며 나는 그 덕에 매우 행복하다”면서 “나는 여전히 이강인을 신뢰하며, 그는 기회가 또 주어질 때 제 몫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승격팀 바꾼 수원 안병준의 ‘발’

K리그2 승격 PO 경남전, 종료 직전 PK 골... 리그 순위따라 1부리그행

‘득점왕’ 안병준(수원FC)의 시즌 마지막골이 K리그2 승격팀을 바꿨다.

수원FC가 29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경남FC와의 2020 K리그2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나온 안병준의 페널티킥을 앞세워 1-1 무승부를 이뤘다.

승리를 쟁기지 못했지만, 정규리그 순위에 따라 2위 수원FC가 경남을 따돌리고 1부리그 티켓을 거머쥐었다. 강등 5년 만에 이룬 수원FC의 1부리그 승격이다.

K리그1에 있던 군팀 상주 상무가 연고지 협약 종료에 따라 K리그2로 자동 강등되면서, 올 시즌은 승강 플레이오프 없이 승격 플레이오프로 승격팀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K리그2 1위 제주 유나이티드가 우승팀 자격으로 승격을 이룬데 이어 수원FC도 내년 시즌 1부 리그에서 뛰게 된다.

경남에게는 ‘통한의 1분’이 된 경기였다.

경남은 리그 최종전에서 대전하나시대를 상대로 1-0 승리를 거두면서 6위에서 3위로 점프했다. 이후 준플레이오프에서 다시 만난 대전전에 1-1로 비기면서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이뤘다.

그리고 몸이 풀리지 않은 수원FC를 상대로 초반부터 공세를 벌이면서 전반 26분 선제골도 장식했다. 프리킥 상황에서 뒤로 흐른 공을 잡은 최준이 오른발 슈팅으로 수원 골망을 흔들면서 리드를 잡았다.

상대의 공세를 잘 막으면서 승격으로 가는 것 같았지만 후반 추가시간 김형원의 푸싱 파울이 나왔고, 비디오 판독 끝에 수원FC의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올 시즌 21골을 몰아넣으면서 K리그2 득점 1위를 차지한 안병준이 페널티킥 키커로 섰다.

안병준은 침착하게 골대 왼쪽을 뚫으면서 2020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마지막 골을 장식하며, 수원FC의 1부행을 확정했다. /김여울 기자 wool@